

제 1 회 전국 대학생 일본어 번역대회

한일번역 문제 (2 교시)

수험번호		성명	
------	--	----	--

<주의사항>

1. 감독자의 시험시작 지시 전까지는 문제지를 펴서는 안됩니다.
2. 시험시작 지시 후에는, 먼저 윗 칸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십시오.
3. 본 문제지는 시험종료 후에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일시 : 2013 년 10 월 26 일(토)

●장소 : 서울 대명중학교 / 부산 광무여자중학교

주최 : 사단법인 한일협회

후원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협력 : 사단법인 부산한일교류센터

협찬 : (주)한국히타치, (주)해외교육사업단,

관서외국어전문학교 일한통번역과, 동경외어전문학교 일한통역과

<2 교시 한국어→일본어 번역 문제>

문제 1>(25 점)

2007 년 전북 김제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경로당을 열고 '그룹 홈'이라고 이름 붙였다. 노인들이 모여 쉬거나 여가를 즐기던 마을회관을 홀로 사는 65 세 이상 할머니들이 24 시간 먹고 잘 수 있는 공동생활 시설로 바꿨다. 할머니들은 함께 밥 짓고 청소하고 운동하고 목욕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잇달고 노인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고독사는 일본에서 온 말이다. 가족·친척·사회와 떨어져 살다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고 죽어서도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다. 일본 공영방송 NHK 는 2010 년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한 해 무연고 사망자가 3 만 2000 명에 이른다"고 보도해 충격을 던졌다.

<출전: 2013,10,03 일자 조선일보 「만물상」에서>

문제 2>(25 점)

‘스포츠카처럼 재빠르며, 롤스로이스처럼 부드럽고, SUV 만큼 짐을 실을 수 있고, 도요타 프리우스보다 효율적인 차’.

지난해 말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는 올해의 자동차로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S’를 선정하며 이 같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모델 S 에 대해 100 점 만점에 99 점을 줬다. 기존 엔진 자동차를 통틀어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였다.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 등 풀어나야 할 기술 과제가 적지 않고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으로 부각됐다. 이 때문에 상용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어 자동차의 주류로 떠오르기 힘들다는 인식이 강했다. 전기차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GM 볼트, 닛산 리프 등이 예상보다 판매량이 떨어지며 이런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는 듯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출전: 2013,10,12 일자 매일경제 기사에서>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문제 3>(25 점)

옥영은 대수롭잖다는 듯이 얼버무렸다. 둘은 그 문제에 대해 더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젯밤 귀가한 남편을 향해 내일 내려간다고 통보했다. 남편은 그녀를 삼초간 노려보았고, 넥타이를 풀어 침대 위에 내던졌으며, 입을 껍 닫았다.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그에게 사실 아무 상관없을 것이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한 데 대해 분노하고 있을 뿐이었다. 옥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대로 움직였다. 남편이 화가 난 상태라는 게 어찌면 더 다행일지도 몰랐다.

레슨비가 든 봉투를 혜성의 방에 올라가 직접 전해줄까 하다가 그냥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혜성과는 그 정도 무언의 소통은 가능한 사이였다. 유지의 얼굴을 한번 보고 갈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어쩐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출전: 문학동네, 정이현 장편소설 『너는 모른다』에서>

문제 4>(25 점) ※주: 괄호 안의 영어는 번역시에 생략해도 됨.

인공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란 체세포에 수종류의 유전자를 도입함으로써 ES 세포(배아줄기세포) 처럼 매우 많은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분화만능성(pluripotency)과 분열증식을 거쳐도 분화만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복제능을 갖도록 한 세포를 말한다.

영어명의 머릿글자를 따서 iPS 세포라고 불리는 외에 영어명의 의미역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라고도 불린다.

분화만능성을 가진 세포는 이론상 몸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과 장기로 분화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람의 환자 자신으로부터 iPS 세포를 수립하는 기술이 확립되면 거부반응 없는 이식용 조직이나 장기 제작이 가능해진다고 기대되고 있다.

<출전: Yahoo Japan, Wikipedia 에서>